

[교회 고백 문서]

**코로나 19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본
교회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

2020-2022

I. 서론

1. 코로나 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의도나 계획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삶의 방식과 관계 양식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근대 문명의 기본 전제와 틀을 그 기초에서부터 흔들고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 국가라는 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바로 그 근대적 정상성의 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코로나 19는 국민국가와 자본주의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질서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물음을 던지게 한다. 팬데믹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백신 정국에서 국가주의라 할 만큼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국가 체제의 이기적이고 고립적이고 배타적인 행태는 그 체제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는 그 질서가 팬데믹을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난과 그 재난이 가져오는 희생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냉담하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기간에도 자신의 욕망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선택하겠다는 오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팬데믹은 교회의 종교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

을 다시 소환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신성하다고 여겨왔던 교회적 삶의 방식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만,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도 분명히 보았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 세계와 삶의 실재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여기며 편안하게 안주해 왔던 그 질서의 실상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 정상성에 안주하면서 무시하고 배제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19 팬데믹 하에서 가장 많이 희생당하고 가장 심하게 고통받는 바로 그들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가 숨기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지구 위의 인간 삶의 실상의 폭로요,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실재를 직시하고 미리 맛보게 한 사건이다.

2. 이러한 파국 혹은 묵시(apocalypse)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파국과 묵시는 반드시 부정적인 절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성서가 말하는 파국과 묵시는 우리의 문명과 삶의 깊고도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 위에서 말하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준 팬데믹의 재난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희망의 이야기들이 엮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기득권을 주장하는 일부 국가들이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만이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하는 전체 지구 생명계의 미래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는 지구적 협치(governance)의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요청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요청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가져다준 새로운 깨달음에 기초하고 있다. 계속되어 온 자본에 의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와 착취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코로나 19로 인한 재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 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3.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다시 엮어내야 하는 이 파국의 상황 앞에서, 그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교회와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 수행해왔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나누어 보려고 한다. 이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의 긴급하고 절박한 선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우울과 절망의 만가(挽歌)가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과 분투에서 솟아나는 희망의 노래다.

4. 이 문서는 팬데믹의 위기 상황을 심각한 사회적 도전이면서 동시에 교회론적이고 신학적 도전이라고 인식하는 신자들과 목회자들과 에큐메니칼 신학자들의 2년여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와 ‘크리스찬아카데미’가 연대하여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와 교회”라는 주제하에 총 8차에 걸친 에큐메니칼 대화를 진행하였다. 2021년 7월부터는 약 30여명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고백문서를 만들기 위한 토론을 시작하였고, 2022년 2월에 고백문서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후 다양한 에큐메니칼 선교 동반자들과의 대화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진행해 갈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문서는 계속 보강되고 수정되고 있으며, 또한 신학적이면서 신앙적인 공감과 이해가 폭넓게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II. 사회와 문화

뉴노멀은 보다 넓고 깊은 협력과 연대를 향한 도전이어야 한다.

5.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는 팬데믹 이후의 미래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¹⁾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이 표현에 담긴 경고를 읽어내야 할 것이다. 그 미래학자는 지금 인류가 강제된 선택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화된 세계의 변화된 질서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이기 보다는 어두운 묵시적 전망이다. 그 변화의 과정이 희망과 약속을 가지고 걷는 여정이 아니라 더 절망적이고 더 참혹한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다. 강제적으로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깊고도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협력과 연대의 새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과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질서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시도가 최소한의 예외와 자비심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의 생존투쟁은 더욱 처절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이처럼 팬데믹 이후의 질서에 대한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뉴노멀은 절망에의 적응이 아니라 희망을 엮어내기 위한 의도적 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2020년 3월 2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에 기고한 「The world after coronavirus」란 글에서 유발 하라리는 “Yes, the storm will pass, humankind will survive, most of us will still be alive but we will inhabit a different world”라고 말한다.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6. 뉴노멀(New Normal)은 2008년 금융대란 이후에 만들어진 신조어다. 한편으로 뉴노멀은 그와 같은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의 특징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세계경제가 소위 말하는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율,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말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뉴노멀은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래 관계의 표준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을 말하는 우리 시대의 용법에 의하면 뉴노멀은 정보기술의 변화와 함께 도래한 인간관계나 상품의 유통이나 거래상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말한다. 뉴노멀에 대한 이와 같은 정의들은 다분히 지금의 자본주의 질서가 품고 있는 포기 불가능한 욕망을 대변한다. 변화된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함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의지와 욕망의 표현이다. 이러한 뉴노멀의 전망 속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반성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참회와 회심도 기대할 수 없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의 한 복판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희망은 결코 그와 같은 적응주의적 뉴노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진실로 추구해야 하는 뉴노멀은 팬데믹의 위기와 재난을 불러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과 회심에 기초해야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그 때(Καίρος)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도록 요청하고 있는지 찾아내려는 간절함으로 뉴노멀을 말해야 한다.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가 팬데믹의 원인은 아니다. 바이러스를 팬데믹으로 만들어 낸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삶의 옛 질서다. 그러므로 뉴노멀은 차별적이고 배제적이며, 인간중심적이고, 생태 파괴적이고 착취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질서가 재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임을 인식하면서, 새로운 질서와 규칙을 찾는 노력이어야 한다.

7. 정치적으로 뉴노멀에 관한 이야기는 국가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모색이

어야 할 것이다. 팬데믹의 표면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지금과 같은 지구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가 국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동선추적과 공개과정 등에서 국가와 관료제도의 일사불란한 작동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대한민국이 국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는 정치적 배제, 경제적 착취, 문화적 소외를 합법화해 온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매우 빈약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심화되어 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불평등이 결국 재난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의 긴급성을 구실로 언제든지 민주적 의사소통과 결정 과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도 국가라는 체제가 가진 위험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정치질서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라는 것이 과연 지구적 협력과 연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제인지 깊은 우려와 의심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역 자원과 백신의 분배에서 보듯이, 1.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적 위기 관리를 위해 등장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체제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의 위기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국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8. 정치적 뉴노멀에 대한 전망도 팬데믹의 근본 원인들을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이고도 공동체적인 참회와 회심에 기초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참회와 회심은 정치적 소외와 불평등이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참사의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함께 폭발하는 양상을 보았다. 방역 정책의 불평등한 적용이 이 사회적 갈등과 결합하는 양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불평등한 관계가 사회적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위기 극복의 길을 찾는 노력에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확

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뉴노멀에 대한 전망은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참여적인 민주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진정한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인종, 성, 계급, 국적 등의 차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하고 참여적인 정치질서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팬데믹의 진정한 원인을 보다 가깝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재난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도 그리고 공동체적 삶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모색도 보다 포용적이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참여적인 민주질서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9.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은 지금까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왔던 지구화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었다. 상상을 훨씬 뛰어 넘는 바이러스의 지구적 전파 속도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온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경계와 장벽들을 일시에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지구화한 사회의 불평등한 정치경제적 질서가 재난과 피해의 강도를 차별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고 있다. 지금은 물론이요 앞으로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지구적 재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국제 관계 질서가 변하지 않는 한, 지구상의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참혹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각 개인과 모든 공동체가 지구적 책임성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지구적 신뢰와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국제 정치질서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숙고해야 할 것이다.

10. 경제적 뉴노멀, 곧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우리들의 전망도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국가적 혹은 지구적 경제질서가 결국은 팬데믹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반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세계 교회 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팬데믹이 있기 오래 전부터 지구화하는 자본주의의 전체주의적 기도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²⁾ 지구의 모든 생명과 자원은 물론이요 인간의 삶과 심리의 모든 깊이와 넓이에 이르기까지 상품화하고 시장화하려는 전체주의적 시도에 대해 명백한 반대와 저항을 표현해 왔다. 팬데믹은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하면서 달려온 당연한 결과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팬데믹은 인간의 윤리적 판단과 책임성에 의지하기 보다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허무주의적 태도가 만들어 낸 파괴적 결과 중의 하나다. 팬데믹은 이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소유를 향한 욕망의 무한 추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호도해 온 시장 중심주의의 파괴적 힘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뉴노멀에 대한 전망은 시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국가나 사회를 포함한 공동체의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 시장전체주의의 신화는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한 노동구조가 시장을 위해서 한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강변해 왔다. 때로는 그와 같은 비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인 발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허무적 절망을 뉴노멀이라고 포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정말로 재난이 되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분명히 보아야 한다. 이미 무수한 통계가 충분히 보여주고 있듯이, 그들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시장전체주의의 신화가 정당화해 온 경제적

2) 아가페(AGAPE) 문서로 알려져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문서를 참고하라. 여기서 아가페(AGAPE)는 “Alternative Globalization Addressing Peoples and Earth”라는 문서 타이틀에 대한 약어다. <https://www.oikoumene.org/sites/default/files/Document/agape-new.pdf>

양극화의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확산 속에서도 원격이나 재택근무를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감염의 위협을 알면서도 생존을 위해서 대면 노동을 멈출 수 없는 노동 약자들 곧 불평등한 노동 구조의 희생자들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뉴노멀은 이들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전체 공동체의 아픔과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일이어야 한다. 경제적인 뉴노멀은 무엇보다 먼저 반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인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에 대항해서 인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12. 생태적 관점에서 뉴노멀을 상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추구해 온 인간문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것이다. 생태학자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출현을 산업혁명 이후 아무런 비판도 반성도 없이 진행되어 온 전 지구적 수탈 시스템에 대한 지구의 반격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19등 최근에 창궐했던 감염병들은 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이들의 출현은 발전과 진보의 이름으로 자연 자원을 무자비하게 착취해 온 과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 생물들의 서식지가 점차 줄어들어 왔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그리고 문명과 자연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존을 지켜 줄 수 있는 거리와 간격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결국 자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인수공통 감염병들은 이러한 반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다.

13. 지난 수세기 인류가 추구해 온 문명은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 자본주의 문명은 인류를 이윤과 욕망의 추구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하나로 묶는 데는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자신

이 만들어낼 파괴적 결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면하거나 축소해 왔다. 이미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과 기후 위기와 같은 재난의 지구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극적인 외면이나 부인 전략을 통해서만 자본주의 문명이 자신의 실상을 감출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구적 자원과 생명의 무한한 이용과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였다. 윤리적 책임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무한 욕망의 추구는 합법화되고 정당화된 불평등한 관계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이요, 사람과 다른 생명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환경 사이에 있는 깊은 상호의존 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거나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문명이 지속시켜온 착취적 관계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와 같이 자본주의 문명이 부당하게 왜곡하고 부인해온 관계 이해의 파괴적인 결과를 입증한 사건이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뉴노멀은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이요 사람과 다른 생명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14.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사회 구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코로나 19로 인해 갑자기 등장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미 우리들 삶의 관계와 질서 안에 자리잡고 있던 문제들이 한계점에 이르러 터져 나온 것이 지금의 재난이다. 그런 만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과거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외면이거나 부인이다. 뉴노멀은 과거의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변화된 조건 같은 것이 아니다. 뉴노멀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과거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뉴노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간중심적인

착취와 차별의 질서를 냉정하게 성찰하면서 그 너머의 새로운 질서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뉴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자본의 탐욕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인간 공동체들 사이의 지구적 협력과 연대, 그리고 지구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얽혀 살아가는 관계를 보다 깊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함께 사는 새 길을 찾는 언택트 시대

15. 뉴노멀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회학적 표현이 ‘언택트(untact)’다. 하지만 언택트 역시 코로나 19 팬데믹이 탄생시킨 신조어는 아니다. 첨단 기술 사회, 정보화 시대, 그리고 소비자본주의가 결합하는 영역에서 이미 등장했던 용어다. 표면적으로는 언택트가 장소와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 숨은 뜻을 헤아려 보면, 상호작용(interaction)과 상호소통(communication)이 가져다줄 수 있는 불편함을 제거한 연결(connection) 혹은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격적 관계나 상호작용 없이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인간적인 관계나 상호작용이 주는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21세기 자본은 소비자중심이라고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중심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16. 이와 같이 지극히 상업적인 언택트 문화가 말하는 선택의 무한 자유와 선택할 품목의 무한 다양성에 대한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진정한 만남이 없이 인터넷으로만 이어진 채 자유를 말하고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자유와 다양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대면 만남이 없이 일중

의 느슨한 연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서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깊은 상호작용을 주고받거나, 타자의 삶에 깊이 공감하거나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이들의 자유는 엄연히 존재하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가상 공간에서 관조할 수 있는 자유는 될 수 있어도 공감하고 참여하고 변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자유가 되지는 못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언택트는 외부의 영향이나 변화의 요구로부터 자신의 삶을 분리하고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언택트 문화가 공동체 질서와 삶의 양식의 변화를 향한 연대를 가로막거나 무기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염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17. 팬데믹 상황에서 언택트는 정부의 방역정책이 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수단은 국민들로 하여금 언택트를 삶의 피할 수 없는 원칙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의미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 선택이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자는 의미이지만, 사회적으로 관계를 멀리하자는 의도는 결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는 팬데믹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18. 언택트 역시 관계를 피하고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거리두기가 진정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면접촉과 물리적 거리나 간격이 없다는 것이 당연히 더 친밀하고 보다 상호작용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오히려 대면 접촉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사회적 거리와 간격을 체험하

면서 살았을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은 대면 접촉 사회에서 건널 수 없는 사회적 거리와 간격을 느끼며 살아야 했을 것이고, 비대면 언택트의 사회에서 이들은 도저히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면 접촉의 시대에도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았고, 지금 언택트와 거리두기의 시대에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지도 보호하지도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 핵심은 택트나 언택트, 대면과 비대면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맺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다. 우리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어온 예수의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실천하는 문제라는 말이다.

19. 언택트 문화가 가장 마지막으로 당도하는 곳이 교회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사회의 많은 분야가 언택트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교회는 철저하게 대면 관계와 문화를 기초로 움직이는 공동체였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는 21세기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인격적 상호작용이나 소통이 없는 연결의 공동체가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어도, 교회에서는 힘을 얻지 못했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언택트와 거리두기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는 대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회피하는 것이다. 언택트와 거리두기 시대에 교회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시급한 질문은 “지금까지 교회가 정말로 타자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바르게 실천해 왔는가?”라는 물음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대면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성서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친교(koinonia)와 교통(communion)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물어야 한다. 대면 예배가 교회의 제도와 권위를 위해서 신자들을 동원하고 서열화하는 데 이용되고, 진정한 의미의 친교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 대면의 만남과 예배가 교회 밖의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언택트와 거리두기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대면과 비대면 사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으로 그 안에서 모든 사람과 생명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교회공동체를 다시 세워내는 일이다.

20. 팬데믹의 경험을 숙고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겨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닐 것이다. 대면 접촉의 시대에 우리가 목인해 왔던 ‘차별과 배제와 무관심의 거리두기와 언택트’가 진정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이웃과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는 삶이 무너지는 곳에 재난이 오고 있음을 안다. 그래서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19 시대의 언택트와 거리두기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이 매우 상호의존적으로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혹은 문학적 수사로 들어왔던 인간이 타자적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 본질을 호도하는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문화

21. 코로나 19 언택트 상황은 타자와의 연대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와 재난의 상황은 혐오의 문화와 현상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국내외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사회적 혐오 현상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형태의 혐오를 말하고 있다. 하나는 자연적 혐오라고 말 할 수 있는데 배설물, 체액, 시체 같은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차원의 혐오로서 투사혐오(projective

disgust)다. 코로나 19 이후의 혐오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투사혐오다.

22. 투사혐오는 원초적 대상에 대한 혐오가 특정한 집단, 인종, 젠더, 계급에게로 전이되는 것인데, 이 투사혐오는 사회적 재난과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의 원인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서 찾는 것이다. 마치 바이러스의 숙주를 특정하듯이, 하지만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사회 구성원 중에 소외되고 약한 집단이나 주류문화를 따르지 않는 특정 집단을 사회적 재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리고는 그들을 사회적 비난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위기와 재난으로 인해서 대중이 느끼는 사회적 공포와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고 희생양이 되었던 슬한 민중집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23.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의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혐오,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혐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중국과 중국인을 향한 혐오발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보수언론과 정당에서는 중국인의 출입국을 제한해야 한다는 강성메시지를 유포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 1월 23일 코로나 19의 감염을 막기 위해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었는데 한 달 만에 76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특정집단을 향한 혐오 주장이 최초로 사회적 세력으로 나타났던 사건이다.

24. 2021년 2월 대구발 코로나 19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당한 “신천지”라

는 종교집단에 대한 혐오는, 혐오 증상의 절정을 찍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두 차례에 걸쳐 1천명이 넘게 참석하는 대구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혐오는 본격화되었다. 이는 중국인을 향한 혐오보다 더 강렬한 것으로 2020년 2월 23일 시작된 신천지 예수교회를 강제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증명되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과 비례하여, 마치 숙주를 찾아 번이를 거둬들이고 퍼져 나가는 바이러스처럼, 우리 사회에서 혐오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신천지라는 종교집단에 대한 혐오를 거쳐 동성애 혐오로 번져갔다. 2020년 5월의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산은 위기와 재난이 품은 혐오 바이러스가 동성애혐오(homophobia)로 변이 증폭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5. 2021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한국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 의하면, 이태원클럽발 코로나 19 감염 확산 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반감 증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반감이 커졌다”고 답한 사람이 65.3%,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26.3%, “잘 모르겠다”가 8.4% 나왔다. 보다 종합적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을 위한 계기를 제공했다고 간주되는 집단들에 대한 혐오 감정에 관해서 물었을 때, “경계하거나 혐오했다”는 응답이 71.6%, “혐오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4.5%로 조사되었다.³⁾ 이와 같은 통계지표는 사회적으로 위기와 공포가 확산되는 재난 상황이 혐오와 배제의 문화나 정치와 쉽게 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와 신자들 역시 이러한 혐오와 배제의 문화와 깊이 연루되어

3) 송진순, “코로나 19상황에서 본 젠더불평등과 혐오” 『코로나19와 한국교회의 사회인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21), 151.

있음을 알려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천지라는 종교집단과 성소수자들을 향한 혐오를 증폭시키는데 교회가 했던 역할을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이러한 통계지표의 이면을 깊은 반성의 자세로 읽어내야 할 것이다.

26. 팬데믹의 재난과 위기를 사회적 혐오와 결합시키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소외와 배제의 문화다. 사실은 팬데믹이 있기 이전부터 주류문화에 의해서 소외되고 배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마저 주장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전혀 반성이 없는 주류 종교와 문화와 사회를 떠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외와 배제의 문화는 자신을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미 소외와 배제 속에 있는 집단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왔었다. 그리고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소외와 배제 그리고 혐오의 문화가 더욱 증폭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27. 통계에 의하면 2020년 1~8월 20대 여성의 자살율은 전년(2019년) 대비 43%나 증가하여 전 세대와 성 별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⁴⁾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카드 연체율, 현금서비스 사용률, 주거 지원 요청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20년 3월 한 달에만 20대 여성 12만 명이 일 자리를 잃었다는 보도도 나왔다.⁵⁾ 이는 20대 여성의 자살률 급등이 경제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적 위기와 재앙이 닥쳤을 때 노동현장에서 가장 먼저 제거되는 집단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20대 여성이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미 소외와 배제 속에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통로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4) “20대 여성의 고통은 사회적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겨레 신문」(2020. 12.3).

5) “20대 여성의 고통은 사회적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겨레 신문」(2020. 12.3).

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보게 된다. 한국 사회의 20대 여성의 상황이 이런 것이라면, 경제적 빈곤층, 문화적 성적 소수자들, 인종적 약자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법적인 지위가 취약한 사람들이 팬데믹의 위기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었을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8. 팬데믹의 위기와 재난이 소외와 배제를 더욱 심화하고 사회적 혐오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위기와 재난이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재난 상황은 긴급한 위기를 핑계로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살려야 하는 사람과 희생해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는 차별과 배제의 질서를 쉽게 정당화한다. 더 나아가 그렇게 정당화된 차별과 배제의 질서 하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주장도 포기한 채 우리 사회의 시계 밖으로 내 몰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유 없는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 정치와 문화, 소외와 배제의 정치와 문화, 혐오의 정치와 문화의 위험한 결합을 경험했던 것이다.

29. 이처럼 위기 상황에 기생하여 증폭하는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현상은 위기의 원인을 호도하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의 삶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팬데믹은 바이러스 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안에 잠복하고 있던 병증들과 결합하여 재난으로 폭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있던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 그것을 외면해 온 우리들의 무관심, 그리고 무관심을 넘어 차별과 배제와 혐오를 정당화해 온 배타적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야말로 팬데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30.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우리 이웃들의 가난

과 소외와 고통은 결국 우리 모두의 고통과 재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진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은 결코 우발적으로 나타난 위기나 재난이 아니다. 바이러스라는 외부적 요인에서만 재난의 원인을 찾아서도 안 된다. 팬데믹의 재난은 한국사회와 교회가 이미 자신 안에 담아서 키워낸 재난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과는 다른 특정한 집단을 혐오의 표적으로 삼아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자신 안에,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소외와 차별과 배제의 장벽들을 헐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차별당하고 배제당하고 혐오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성서는 어떤 인종적, 성적, 문화적 경계도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교회는 자신 안에 차별과 배제의 장벽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 장벽들이 재난을 증폭시키는 원인들이 되었다. 결국 우리 사회와 교회가 팬데믹 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자신들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삶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씨앗들을 직시하고 성찰해 낼 수 있는 솔직함과 겸손함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III. 정치와 경제

코로나 팬데믹과 탐욕적 자본주의

31. 코로나 19 팬데믹의 발생의 원인은 물론이요 지구적 확산과 전개 과정 역시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한계도 절제도 없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생산과 소비의 무한 확대를 향한 욕망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무한 욕망에 기초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추구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착취하고 파괴하게 된다.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감염병이 될 수 있는 생태적 조건을 제공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탐욕이 자행해 온 생태계의 파괴와 착취다. 더 나아가 그 감염병이 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지구 사회의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참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제공한 것도 지구적 자본주의 질서가 추구하는 무절제한 욕망이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인간 사회나 생태계의 필요를 관리하는 질서가 아니다. 반대로 자본주의 그 자체의 생존과 무한 확대를 위해서 인간사회와 생태계를 자유롭게 이용하겠다는 질서다. 한 마디로 생명의 필요를 연결하는 경제 질서가 아니라 욕망의 무한 추구를 위한 욕구 충족의 경제 질서다.

32. 하지만 인간 사회의 경제생활이 언제나 욕구의 무한 추구하고 충족을 추구해 왔던 것은 아니다. 인간사회는 훨씬 더 오랫동안 필요(needs)의 충족을 경제생활의 중요한 가치와 목표로 삼아왔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독점하는 것을 악덕으로 여기는 전통이 모든 문화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필요가 아니라 절제라는 제어 장치를 벗어버린 욕구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필요마저 외면하는 욕구충족의 경제다. 이렇게 보편화하고 절대화한 욕구 충족의 경제는 그 욕구를 각종 문화적 장치들과 수사들을 동원해 미덕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필요와 욕구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가 말하는 욕구와 욕망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향한 욕망으로 축소되어 있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의 추구도 삶의 의미의 추구도 모두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축소 환원되고 절대화한다. 스스로를 최고의 시장 가치를 갖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삶의 실현으로 포장되고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생산과 소비의 무한 추구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원리처럼 작동하고 있다.

33. 자본주의는 그 시작부터 인간의 이기적 욕심에 기초해서 경제를 발전 시키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 낸 가치의 전도와 왜곡이 가져온 결과는 물론이요 앞으로도 가져오게 될 결과 또한 매우 부정적이다. 인간과 생태계의 필요를 외면한 욕구의 추구,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위한 욕망을 인간들의 다른 모든 욕망 위에 두어 온 결과가 지금의 팬데믹이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기후 변화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와 재난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과제는 매우 분명하다. 먼저 필요와 욕구의 우선 순서를 뒤바꾼 가치의 전도를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전도된 가치에 기초한 자본주의 질서를 변화시켜 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 사회의 노동 현실과 위기

34. 한국 사회는 아직도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일어나는 산업재해와 그 가운데 희생당하는 생명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자본의 저항 앞에서 그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 정도로 여기며 방조하는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산재 희생자들을 향하여 명복만 빌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회라는 한 소설가의 비판은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한 가장 솔직한 증언이다.⁶⁾

35.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의 또 한 측면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다. 한국의 노동 상황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른 차별이 엄존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내에도 성격과 조건을 달리 하는 노동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노동간의 분절과 차별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최근의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IT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 비율이 가장 높은 사회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의 물결이 더해지면서 산업부문별 양극화와 고임금 고숙련 노동과 저임금 저숙련 노동간의 임금격차가 훨씬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6.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실질적 주체가 바로 노동자들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미래의 보상을 담보로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희생시켜 온 과정이었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은 지금도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더욱 분열시키고 소외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질곡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을 통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곧 노동 소득 분배율인데, 자본을 포함한 다른 소득 분배율과 비교를 통해 한 사회의 분배구조와 불평등의 구조는 물론이요 노동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노동 소득 분배율은 자본 소득 분배율에 비해 이미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 격차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상황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노동

6) 김훈,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한겨레 신문」 (2020. 5.7),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43914.html>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주장의 통로 또한 오히려 협소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조치마저 포기한 채 생업에 매달리고 있는 필수 노동자들과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은 한국 사회의 노동의 위기와 불평등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37.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오랜 과정을 통해서 심화되고 고착화되어 온 문제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 문제를 발전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왔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배정책이나 복지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성장 신화에 취해서 성장이 만들어주는 고용효과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에 의존해 왔다.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구조의 개편과정은 이미 각종 통계자료들이 충분히 증거하고 있듯이 성장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이처럼 이미 심화하고 있던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더욱 절망적인 사회적 참사로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38. 코로나 19 팬데믹이 사회적 참사로 전개되는 근본 원인은 성장 신화에 취해서 방관해 온 불평등의 질서와 구조 때문이다. 성장과 발전의 신화에 갇힌 한국 사회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데 실패했다. 분배를 외면한 성장은 노동의 가치를 끊임없이 평가 절하해 왔고, 당연히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상품 가치에 종속시켜 왔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았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주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표와 지수들로 가득한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다. 노동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사회질서다. 각자 처한 형편이 어떠한든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다.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회다. 이런 사회야말로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사회라고 믿는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과 발전을 숭배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삶과 노동의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하는 때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지키고 회복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명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다시 그려내야 한다.

노동의 위기와 근본적 전환의 요구

39.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심화되어 온 불평등이 사회적 참사로 터져 나오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와야 한다는 희망과 신념을 다시 세운다. 지극히 이기적인 효율과 경쟁과 독점의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생명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나눔과 섬김이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름을 다시 듣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는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이해해온 경제에 대한 이해 그 자체를 변혁하라는 요청이다. 필요와 무관한 욕구 충족의 경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 성서와 교회의 신앙 전통이 견지해 온 다른 생명들의 필요를 배려할 수 있는 필요 충족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40. 성서와 그리스도교 전통은 필요를 넘어선 부의 축적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해 왔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주기도문은 소박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다(마 6:9-13, 눅 11:2-4). 모든 인간들이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말해준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마 20:1-6)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정의가 노동의 양에 따른 정확한 분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새 질서는 노동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도 기본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회다. 최후 심판의 비유(마 25:31-46)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얼마나 공감하고 연대하고 응답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기준이다.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된 자들 그리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하나의 필요에 공감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한 것이 징벌의 이유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재난의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41. 경제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일관된 가르침은 인간과 생명이 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 인간과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정신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정신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어떤 경제체제에서든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할 원칙이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 현실에서 이 원칙은 더욱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다.

정의로운 정치 경제 체제의 재구성

42.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대안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변화를 위한 노력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필요 충족의 경제 질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기술적, 물질적 조건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욕구충족의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얼마나 깊이 결탁해 있는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생명들의 필요에 대한 배려와 응답이 하나님의 생태적 정의이며 사회적 정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지금의 경제 질서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질서를 하나님의 생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투신해야 할 것이다.

43. 경제체제 혹은 경제 질서라는 거대한 틀에 대해서 성찰하고 도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골고타의 십자가의 가장 비극적인 상황으로부터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경제체제나 질서는 인간들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주어졌던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매우 의도적인 인간들의 선택과정들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질서나 체제의 변화 역시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의도적인 선택과정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은 물론이요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를 향한 의지들을 모아낼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44. 우리가 원하는 민주정치는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집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승자 독식의 정치가 아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소수자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배제당하지 않는 정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가 진정한 민주정치다. 경제적 불평등과 가난한 자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어쩔 수 없는 대가로 여기며 무시하거나 합법화하는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팬데믹과 같은 비상한 상황을 빙자해서 사회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희생에 눈감는 정치는 진정한 민주정치가 아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튼튼하게 살아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다.

45.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는 현상을 목격하였다. 특정 집단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위기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포퓰리즘 정치를 보았고, 특정 집단을 향한 적대와 미움을 동력으로 하는 혐오의 정치가 위기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모습도 보았다. 방역에 모든 초점이 모아진 상황에서 합리적 근거도 없는 우선순위를 내세우고, 그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배제의 정치도 있었고, 개인들의 선택이 쉽게 무시되는 상황도 보았다. 한 사회나 공동체 안에는 쉽게 하나로 통일시킬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일정한 갈등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나 갈등이 있다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을 새로운 질서를 향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대화의 정치다. 다른 모든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승자의 단일한 목소리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분명히 위기는 보다 포용적인 민주적 질서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기득권 승자독식과 배제의 정치를 향한 욕망이 그 야심을 숨김없이 표현할 수 있는 위험한 기회이기도 하다.

46. 포퓰리즘이나 배제와 혐오의 정치, 기득권과 승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합법화하는 정치 현상들은 장기적으로 자리 잡은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조건 위에서 가능한 정치들이다.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채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될 때,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선택 보다는 근시안적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근시안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의 특정집단을 향한 혐오와 증오를 선택하거나 포퓰리즘적 선동을 따를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문제와 민주적 정치과정을 만들어 내는 일은 서로 분리된 과제일 수 없다.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경제적 정의의 실현과 저마다 자율적인 주체로서 주권을 보장하는 정치적 정의의 실현은 같은 과제의 양면이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기본소득의 실현

47. 일한 만큼 받는다는 원칙은 불변하는 철칙이 아니다. 그것만 지켜지면 사회적 불평등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원칙도 아니다. 오랫동안 인류사회는 사회적 불평등과 가난의 문제를 필요에 따른 공공부조의 원리로 해결해 왔다. 업적에 따른 보상의 원칙은 이후에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확립된 것이며, 그 원칙이 사회보험의 보편화로 구체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업적에 따른 보상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완전고용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러한 전제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이 더욱 심화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다. 결국 업적에 따른 보상의 원칙으로는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대안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고, 그 중의 하나가 우리 사회와 교

회 안에서 지속되어 온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다. 불안정한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고 한편 아예 고용의 기회조차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복지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8. 기본소득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공유부(共有富)는 함께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다. 우리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공유부를 갖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와 천연자원 및 생태환경을 포함한 자연적인 공유부가 있고,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문화 등 역사적인 공유부가 있으며, 특별히 오늘날 플랫폼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정보자산 역시 공유부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배타적 소유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공유부의 목록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배타적인 소유나 사적인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유부를 공존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무절제한 사유화에 저항하면서 공유부를 지키고 함께 나누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단지 불평등한 물질의 분배구조를 재편하는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자연의 무분별한 약탈과 상품화를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상품화하고 그에 따라 인간마저 상품화하려는 시장의 횡포를 막아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 질서를 향한 유력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49.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 가운데,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에 대한 주장과 기본소득의 실현에 대한 주장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맥락과 관계

없이 그 둘 중의 하나를 이념적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팬데믹의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위기와 지구적 생태 위기에 응답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복지체제를 운영해 온 경험의 유산은 매우 빈약하다.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체제의 효과는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였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지금의 복지체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보완하려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지금의 복지체제의 개편과 보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보편적 복지의 확대 주장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은 충분히 수렴 가능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팬데믹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위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대안을 발견하기 위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세워 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민주적 숙의 과정 안에서 서로 상충되는 입장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을 위해 상보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권력의 통제와 시민 자율성

50.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방역이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국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방역을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사생활과 인권보호라는 차원이 서로 충돌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는 양상이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이후에 개

인과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의 강화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방역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51. 한국 사회의 팬데믹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권위주의적 국가나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평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의 방역 정책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를 보면, 그것은 오히려 국가의 적극성과 시민의 자율성이 최선으로 발휘되는 상황에 대한 평가였다. 방역의 성공은 결코 국가의 일방적 역할이나 시민사회가 자신의 역할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와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대화적 절차와 같은 민주적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민주적 원칙을 가진 방역만이 방역과 전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그것이 방역 성공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52. 하지만 지난 2년의 팬데믹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한국에서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결코 협력적이지만은 않았다. 민주적인 시민성에 기초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합의한 모든 방역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광기와 혐오를 내뿜는 극우 단체들의 정치적 집회가 계속되었다. 방역을 구실로 국가가 시민사회의 정당한 저항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무차별적으로 억압하거나 침해하는 국면이나 양상도 분명히 있었다. 유엔이 권고하고 있듯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권리 침해의 구실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팬데믹 이후의 보다 건강한 사회를 또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의 위기 상황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로 귀결될

수 없다. 오히려 국가와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역할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전체 공동체의 민주적 질서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 또한 자신들이 발휘해야 할 민주적 시민성 혹은 민주시민의 책임성에 대해서 보다 깊이 숙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긴장과 대화와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다.

경제 불평등 극복을 위한 세계적 연대와 협력

53. 신자유주의 지구화 과정은 한 사회내의 계층 간의 빈부 격차뿐만 아니라, 발전 나라와 가난한 나라들 사이의 빈부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려왔다. 동시에 지구화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보다 긴밀하고도 깊게 연결시켜 놓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지역의 부와 다른 지역의 가난이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적 연결은 즐기면서 세계 내의 지역 간 혹은 국가 간의 불평등의 문제는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역 간의 불평등이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과 재난을 지구적으로 증폭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발전된 나라들은 값비싼 백신의 독점과 국경의 통제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안전을 도모할 뿐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반면에 가난한 나라들은 팬데믹으로 더 악화되는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여, 방역보다는 생존 그 자체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지구적 삶을 살고 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국경이나 지역의 경계를 언제든지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난

한 나라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발전된 나라들의 방역을 근본적으로 무효화할 가능성이며, 더 나아가 팬데믹의 재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다. 가난한 나라들의 방역의 위기는 곧 발전된 나라들의 방역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가난한 나라들의 고통은 곧 우리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라는 지구적 삶의 실재를 숨기거나 외면한 채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망상임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54. 지구적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문제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성과 인종과 계급의 경계선이나 국경선 등의 인위적 장벽을 높이 세워 불평등의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한 장벽이나 울타리 안에 자신을 숨긴 채 세계를 바라보던 기만적 시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협력과 연대의 범위는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경계선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국가를 최후의 단위로 생각하는 정치나 경제에 대한 이해를 벗어나야 한다. 개인과 국가의 삶이 모든 인위적 구별을 가로질러 서로 얽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와 국가의 삶이 인간 아닌 다른 피조물들의 삶과도 깊이 얽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의 바탕 위에서, 한 공동체나 한 국가의 삶을 다시 상상하고 다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협력의 관계를 새롭게 열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국제 정치적 노력 속에서, 무분별한 자본의 폭주를 제어하면서, 지구적 불평등의 문제와 생태적 착취와 파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고 믿는다.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에 대한 논의,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하는 재난과 방역의 지구적 성격에 대한 강조,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에서 희망적 가능성을 본다. 이런 노력들이 지구적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확장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구적이고 생태적인 책임성을 깊이 자각한 교회와 시민사회가 자본과 국가의 이기심을 제어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희망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와 교회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정의

55.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였다.(마 11:12) 그 때마다, 성서와 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향해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선포해 왔다. 성서의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설명들은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 탐욕의 무한 추구에 기초한 경제 질서 안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생명공경에 기초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섬김과 공평한 나눔의 경제생활을 가리키고 있다. 요한복음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르침은 탐욕에 기초한 배타적 소유와 독점의 추구는 죽음의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요한 6:22-59).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의 추구가 영원한 삶의 길임을 증언하고 있다.

56. 그 외에도 성서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경제생활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 당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것처럼 타락한 질서로부터 해방하는 일이다. 하지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질서를 단순히 피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 타락한 질서의 새로운 질서로의 변혁을 말하고 있다. 성서가 보여주는 새로운 질서는 필요 이상의 축적과 독점을 허락하지 않는 경제 공동체이며 동시에 누구나 일용할 양식(출 16:1-36)을 누릴 수 있는 질서다. 그 새로운 질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책임을 구체적인 사회적 계약으로 만들어 지키는 질서다. 성서의 계약법은 과부와 고아와 떠돌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약속을 담고 있으며(출 20:20, 23:33),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는 십일조에 관한 법전(신 12-26)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57.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또한 정의로운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욕망과 이윤의 무한 추구를 동력으로 하는 지금의 경제 질서와는 전혀 다른 길을 향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교회의 신앙 전통 안에서 이어가야 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가난과 고통을 통해서 얻는 부는 죄악이다. 재물뿐만 아니라 토지와 자연 만물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분배되고 공유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하거나 당연하다 여겨온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재난을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시대에, 교회는 불평등한 경제, 정치, 사회 체제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하고 실천해온 신앙을 계승하고 지켜나갈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IV. 생태와 생명

IV-1.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기후 위기가 있었다.

58. 기후위기가 지구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해양의 산성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연안의 침수, 강수량 감소로 인한 토양의 사막화, 극지방 빙하의 해빙, 영구동토층의 감소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생명 있는 존재들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환경조건을 변화시켰다. 그 결과 환경에 잘 적응하는 일부 생물종을 제외하고 생태계 전반의 야생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59. 아울러 기후위기는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다. 기후위기는 전통적인 농업, 임업, 어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약 2,5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지, 식량자원, 경제적 이익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야생생물의 거주지를 개간하고, 야생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빈곤층이 늘어날수록 인류는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침범하게 되고 야생생물과 접촉하는 일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인간과 야생생물과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이 확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60.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지역사회에서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는 가뭄과 냉해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와 연관된다. 인간은 부족한 식량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거주지에 접근하면서 야생동물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류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인수공통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게 되었다.

61. 오늘날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는 원인 역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직접적이다. 야생동물과의 접촉 양상은 대부분 인간이 야생동물의 거주지를 침범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인간이 야생동물의 거주지를 농지, 목초지, 주거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면서 거주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이 농지나 목초지에 머무는 일이 잦아졌고, 이로 인해 인간이 야생동물과 접촉하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62. 이외에도 야생동물의 포획은 야생동물과 인류가 접촉하게 되는 주요 경로가 된다. 최근 들어 기근으로 인해 식량자원을 확보하려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대다수는 특정 문화 현상으로 인한 섭식이나 기호품으로 소비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현재 야생동물 거래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 차원에서 특정 종의 야생동물을 인공적으로 사육하는 일이 확대되면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63. 한편 연구와 실험을 목적으로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미지의 인수공통감염병을 연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특정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빈번

해졌다. 이러한 연구와 실험이 완전한 통제와 안전한 상황에서 지속되지 않는다면, 인수공통감염병이 인간 사회로 침투할 수 있다.

64. 인간이 야생동물의 거주지를 침범하고 개발하게 된 것은 근대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인간에게 지구 생태계는 산업을 위한 자원이자 경제적 이익을 위한 착취의 대상이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생태계에 대한 식민적 관계는 근대 서구사회가 농민, 식민지 노예, 여성, 도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약탈하여 식민화하는 과정이나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절멸시키려는 노력을 넘어 인수공통감염병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65. 인간, 동물, 환경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그것은 고유의 가치와 권리와 주체성을 지닌다. 산업화 이후 토지, 산림, 수자원, 생물을 약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식민적 관계를 맺는 근원에는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의 근본적인 대응은 개발 문명에 치우친 인간중심적 사회 인식과 이에 근거한 산업구조 전반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IV-2. 코로나 이후의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개발과 성장주의 경제에서 비롯된다.

66. 18세기 산업혁명은 공업 및 농축산업 등 산업 전반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로 변모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장경제 중심 사회로 진입했다. 산업화 과정에

서 화석연료의 남용, 산림 파괴, 토지의 난개발은 환경오염을 비롯하여 대기 중에 온실가스 비중을 과도하게 높임으로써 심각한 기후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인류가 지구 대기의 구성비에 영향을 줄 정도로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근대 서구국가들이 경제적, 군사적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67. 수 세기 동안 근대 서구국가들이 식민지를 수탈해온 것처럼, 이들은 산업 성장을 위해 생태적 자원을 약탈하고, 파괴하며, 오염시키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1,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구국가들의 직접적인 식민지 지배는 끝났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지구 생태계를 착취하는 산업구조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더 강고해졌다. 서구국가들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성장시켰고, 식민 지배를 받던 국가들 역시 이러한 산업구조를 적극 수용하여 서구의 경제성장을 따라잡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는 지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부정을 낳는다.

68. IPCC가 2021년 8월에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 제1그룹 실무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2011~2020년의 지구 지표면 평균 온도는 1.09℃ 상승했다. 이 추세면 2021~2040년 사이에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각고의 노력으로 인위적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2081~2100년의 지구 지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1.8℃ 상승할 것이다. 지구는 지금 인류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고

열을 앓고 있다. 이 질병의 후유증과 합병증은 수십 년 이상 지구 생태계를 괴롭힐 것이다.

69. 2020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10개국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이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한국이 여덟 번째고, 1950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배출량 기준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9개국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남아공, 우크라이나, 한국 순으로 한국이 아홉 번째다. 2018년 기준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국이 4위로 역시 온실가스 배출 최상위권에 속한다.

70. 한국을 포함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국가들은 지금까지도 지구 생태계를 약탈적으로 사용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산업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한 기후위기의 피해는 온실가스 저배출국가이자 저개발국가인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기후위기는 국가적, 지역적 기후 불평등과 부정의로 고조되고 있다.

71. 또한 현재 지구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의 49%를 배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소득 하위 10%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양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 상위 10%는 기후위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소득 하위 10%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의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계층적 기후 부정의와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72. 현세대는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 그 어떤 세대들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현세대보다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 세대에 집중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후위기는 세대 간 기후 부정의와 불평등을 고조시킨다.

기후위기 대응은 정의로운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73. 기후위기는 약탈적 산업구조와 시장 중심 사회체제가 빚어낸 낡은 유산이다.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온실가스 제거 기술이라는 과학기술적 접근 방법이나 탄소국경세 도입과 같은 시장경제적 접근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산업구조와 사회체제의 변화가 다시금 지구 생태계를 약탈하거나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생태계와 인간 사회 모두에게 정의로운 산업구조와 사회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74.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온실가스 감소방안은 생태적 성찰과 전환도, 기후 불평등과 부정의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만들 것이다. 거대 자본과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산업체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기후난민, 기후취약계층, 미래세대, 그리고 지구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기후 부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핵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의 가장 근원적 문제이다. 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 인류 전반을 압도하고 있는 자본주의 산업체제, 거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시장 중심의 사회체제와

는 다른 체제를 상상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가. 기후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75. 온실가스 배출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온 산업국가들은 기후난민, 기후 취약계층, 미래세대, 지구 생태계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의 산림, 습지, 해양 생태계의 복원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은 부유한 선진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천연자원을 남용하고 착취한 것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생태 부채(Ecological Debt)를 상환하는 것이다. 생태운동에서 제기되어온 보상 생태(Ecological Reparation), 혹은 생태 부채 상환 논의가 국제회의의 주요 의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주도적 변화와 더불어 기업과 시민사회가 국내의 상황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기후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나. 유전자 공학기술과 생물다양성의 문제

76. 코로나 백신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생명윤리 문제 및 시장 독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상실험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백신 연구와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백신 부자’인 미국이 코로나 백신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특정 기업이 백신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면서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 확산할 때 부유한 나라 10개국에서 75%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130개

나라는 한 개의 백신조차 구하지 못했다. 백신이 인종과 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급되는 불평등한 상황은 팬데믹 종식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77.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유전공학 기술이 생물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유전자조작 생명체를 통해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가운데 이로 인한 생태계의 유전자 오염과 교란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극히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팬데믹의 위험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야생생물의 거주지 보호와 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생태 백신'인 것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유전자 정보의 배타적 권리 주장을 제한하고, 유전공학 기술의 제한적 사용에 대한 논의들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조작으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교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인위적 유전자 오염과 교란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다. 소비자본주의에 대한 성찰

78. 코로나 팬데믹 이후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가속화된 비대면 문화로 인해 온라인 쇼핑과 배달이 보편화되고, 의료폐기물과 방역용품이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을 포함한 쓰레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해마다 증가하는 의류, 가구, 전자기기 등의 폐기물도 예외는 아니다. 의류는 생산에서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최근 패스트패션의 유행으로 의류 생산물이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해마다 전체 직물의 85%가 폐기된다.

79. 선진국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저개발국가로 쓰레기를 수출함으로써 쓰레기 생산국과 처리국이 분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낙후된 지역이나 저개발국가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본주의는 쓰레기 배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파괴를 넘어 국가 간,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나 폐기물의 문제가 단순히 재활용 등의 자원 순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소비자본주의 문화와 체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식 속에서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80.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넘어 기후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다른 문명을 준비해야 한다. 근대 이후 인간의 탐욕과 인간중심적 사고는 인간을 넘어 지구의 전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쓰레기/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역, 국가, 인종, 계급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산업화와 소비자본주의가 지구 생태계와 인간에게 행한 폭력과 착취를 인식하고 생태 전환의 삶을 위한 공동의 협의 과정이 요청된다.

IV-3. 코로나 이후의 생태신학적 성찰

성장과 발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

81. 지금의 기후위기는 근대 서구국가들이 식민지와 약탈경제에서 취해왔던 팽창을 통한 성장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시장의 독점과 확장을 조장해 온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는 지구 생태계를 끊임없이 약탈하는 방식으로 유지

된다. 인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비서구권 국가들이 식민화의 대상이 되듯이, 지구 생태계 역시 인류의 성장과 발전을 명목으로 개발과 착취의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비롯한 천연자원은 고갈되고, 토지와 대기, 물이 남용되고 오염된다.

82.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과 발전은 다른 존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위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대안이 있다. 인간과 지구 생태계를 끊임없이 약탈하고 식민화하는 팽창적 성장주의를 넘어 모두가 공존하며 생태계의 순환구조에 참여하는 탈성장(degrowth)의 가능성이 그것이다. 탈성장이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대신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 것인가?”라는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운동이다.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은 일방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기존의 폭력적 경제체제를 파기하고, 모든 생명체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관계적이고 호혜적인 탈성장 산업구조와 경제체제를 지향한다.

83. 하지만 현재 미국의 그린뉴딜, 유럽의 탄소국경세, 한국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 지속가능성을 표방하는 정책들이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탈성장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을 발판으로 기술적, 정치적 패권을 확보하여 배타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인지, 혹은 녹색으로 포장된 성장주의의 새로운 방식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적, 인종적, 계급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탈성장에 기초한 생태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

84. 성장과 발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 세계 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는 공존과 공생의 삶이 생태적 전환의 기반이 되어

야 한다. 이것은 인류가 이미 경험한 오래된 미래로서 결코 불가능한 길이 아니다. 생태적 전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지구 생태계를 목적적 존재가 아닌 주체적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류는 무엇보다 자신을 지구의 지배자가 아니라 일부로서 생태계와 상호의존하는 관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생태적 전환의 과정은 인간 사회의 가치, 문화, 윤리, 종교를 지구 생태계의 일부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지구는 하나님의 뜻을 위임받아 인간을 돌본다.

85. 지금까지 교회와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볼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청지기론을 제시해왔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여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구 생태계를 통해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내 보이신다. 하지만 청지기론은 인간이야말로 지구상의 다른 어떤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취약한 자연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서구국가들은 자연을 돌보기보다 약탈하고 파괴해왔으며 오늘날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같은 후발주자들이 가세하며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연을 지키며 돌보는 '실질적인' 청지기였던 적이 없다. 오히려 인간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면서도 깊이 있게 회개하지 않았다. 청지기론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만 조장하고, 인간이 자연을 위해 자기 욕망을 절제해야 할 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86. 청지기론은 주객이 전도된 이론이다.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 생태계가 인간을 돌본다는 생각이 더 진실에 가까운 생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지구 생태계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통해 인간을 돌보신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구 생태계를 돌보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지구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인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촉구와 메시지다. 이제 교회와 신학은 인간이 지구 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생각을 반성하고 성서의 가르침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87. 토마스 베리(Thomas Berry)는 ‘지구의 권리’라는 말을 통해 청지기론을 대신할 새로운 세계관을 제안한다. 그는 지구를 주체로 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간은 지구의 장엄한 자기-표현의 부분이라고 말한다. 인간이 건설한 문명과 사회가 지구의 일부라면, 인간이 우월하다는 생각은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월감을 바탕으로 추구해온 인간 문명의 진보가 도달한 종착역은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 아닌가.

생태 영성은 인간 탐욕을 고발하고, 사랑을 노래한다.

88. 오늘날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이라는 지구적 난국은 인간의 탐욕에 기인한다. 인간의 탐욕은 인간 사이의 유례 없는 불평등과 소외 문제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인간의 탐욕이 가장 효율적으로 제도화된 것은 최근 2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산업화 시대의 일이다. 이 시대는 개발과 성장주의로 무장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욕망을 실현하는 산업구조와 사회체제로 나타났다. 이 사회체제는 철저하게 휴머니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든’ 인간을 위하지도 않는다. 이 사회체제의 휴머니즘은 인간을 제외

한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사용해도 괜찮은 ‘덜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동시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물질적 풍요를 누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에 따라 더 탁월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덜떨어진 인간’으로 나뉘게 한다. 오늘날 산업 사회의 휴머니즘은 물질적 풍요를 보장받는 소수의 사람을 위한 휴머니즘인 셈이다. 그 반대편에서는 ‘덜떨어진 것’으로 취급받는 지구 생태계와 ‘덜떨어진 인간’으로 취급받는 대다수 가난한 인간이 신음하고 있다. 인간 탐욕이 가져온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지구 전체의 존재들을 두루 살피는 관점이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영성으로서 생태 영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절박하다.

89. 기독교 정신은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는 정신이다(출 2:23-25). 기독교 정신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정신이다(롬 12:15). 영성은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해서 온전한 삶을 추구한다. 영성은 온전한 휴머니즘을 향해 나아가는 기독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생태 영성은 온전한 삶이 지구 생태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준다. 생태 영성의 가르침에 따르면 온전한 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를 버리고 지구 생태계와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 영성은 인간의 탐욕에 기초한 편협한 휴머니즘을 고발한다. 동시에,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요 3:16)을 따라 지구 생태계와의 사랑을 노래한다.

탐욕의 잔치를 멈추어라!

90. 생태 영성은 인류가 지속적인 성장과 풍요를 추구하면 할수록 지구적인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인류는 성장주의와는 다른 생활 양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은 어떻게 성장주의와는 다른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91. 성장주의자들은 성장이 멈추면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이 계속 성장해야 인류 문명이 풍요롭게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기후 위기나 생명대멸종의 문제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전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성장주의에는 ‘멈춤’이라는 말이 발 디딜 틈조차 없다. 성장을 멈추면 세상이 금방이라도 멸망할 것처럼 여긴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의 증대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장주의는 어떤 종교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추구하는 일은 본래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장주의는 영원(eternity)을 불멸(immortality)로 대체한다. 죽음이나 파멸을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멈춤 없이, 계속 지속하는 삶을 추구한다.

92. 반면, 기독교 생태 영성은 멈춤 없는 영원, 즉 불멸을 추구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에게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다. 죽음 없이 생명은 없다. 멸하지 않고서 생하는 방법을 기독교는 말하지 않는다. 죽는 자가 일어나는/일으키는 것이지, 사는 자가 일어나는/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생태 영성은 죽음 속에서 다시 사는 희망을 본다. 단절을 감행하지 않고서 연속을 말할 수는 없다는 진리를 기독교 생태 영성은 말한다. ‘멈춤’은 지속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진리 사건이다. 개발과 성장을 통해 제도화되어 폭주하는 인간의 탐욕은 멈추어져야 한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93. 지구의 고통에 가장 책임이 큰 서구의 산업국가들과 한국과 같은 후발 산업국가들은 파멸적인 탐욕을 가장 앞장서서 멈추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가장 앞서서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생전 거의 유일한 복음이었던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 4:17)는 선포를 삶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

94. 이 선포는 기독교 생태 영성의 운동 방향을 분명히 한다. 이 말씀에서 하늘나라는 천상에 고정되어 지상에 있는 존재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직접 움직여 ‘온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영원을 품은 하늘나라가 변화하고 생멸하는 이 세계로 진입해 들어온다. 지속 불가능한 세계에 지속 가능한 천국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이다. 하늘나라는 위기에 빠진 오늘날 세계를 구원할 희망 자체다.

95. 예수의 ‘회개하라’는 외침은 하늘나라가 이 세계에 임한다는 말을 전제로 할 때에라야만 이해 가능한 요구다. 헬라어 메타노이아(metanoia)에 해당하는 ‘회개’라는 말은 마음의 변화를 말한다. 따라서, 회개하라는 요구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살림살이를 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탐욕의 마음을 멈추고 삶과 죽음의 이치를 자연스럽게 따르는 우리의 살림살이 속에 영원한 살림살이로 이끄는 힘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나라가 있다. 단절하는 삶 속에 영원한 삶이 있다.

96. 이것이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의 위기, 새로운 차원의 인간 불평등과 소외에 대면해서 기독교 생태 영성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초점이다. 성장주의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비전과 단절하고 희생과 멈춤 속에서 참된

지속을 실천하는 기독교 생태 영성의 초점이다.

V. 위기의 교회

한국교회의 위기와 코로나 19 팬데믹

97.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 활동이 중지되었다. 주일 성수와 현장 예배라는 신앙의 핵심 상징이 붕괴하면서 교회의 위기감은 고조되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위기는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다. 그간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 해왔던 교회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적극 수용하고 목회자 중심의 권위 구조를 토대로 세속화되었다. 신자 개인의 영혼 구원과 교회의 물적 확장에 천착하면서 교세는 확장되었고 교회 부흥과 성장은 경제 발전의 형태와 구조를 따랐다. 교회와 신자 개인의 성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구원의 징표라는 새로운 신앙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98.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교리는 경직되고 목회자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하며 교단은 금권 정치로 운영되었다. 교단은 신학적 차이가 아니라 교권 투쟁으로 갈라졌고, 교회는 투명하지 않은 재정, 권력에 의한 세습, 평등하지 못한 의사소통 구조로 인해 분열하였다. 대형교회 중심의 판에 박힌 예배와 축복 지향의 신앙 양태, 사회 문제에 응답할 줄 모르는 교회는 점차 폐쇄적이 되었다. 교회의 위계적 권위 구조, 사회적 신뢰도 하락, 고령화와 젊은 세대 이탈로 인한 세대 간 단절, 교회 간 교인의 수평이동,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소위 가나안 교인의 증가는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하나의 뿐

리에서 기인한 서로 다른 얼굴이었다.

99. 다른 한편 교회는 근본주의 신앙관에 근거한 편향된 정치이념으로 교인을 의식화하고 이것이 개신교의 신앙과 정치이념인양 호도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극우 반공주의와 가부장적 권력 질서를 옹호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혐오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타종교와 타문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향해 거부감을 넘어 혐오와 배제를 일삼았다. 이러한 모습을 일부 교회라고 치부하기에는 한국 교회 전반의 자정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이 드러났다.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은 기독교의 내적 성찰과 사유를 가로막고, 한 사회 구성원이자 민주 시민의 가치를 저버리게 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정의는 외면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성령의 능력도 상실하였다.

100.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위기는 심화하였다. 대부분 교회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때 일부 교회는 끝까지 대면 예배를 강행하였다. 타인을 향한 사랑과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과 예배와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다”라는 한교총 회장의 발언은 한국 교회의 병폐적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는 예배 행위를 막거나 종교를 버릴 것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불교와 천주교에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개신교는 종교탄압이라는 이유로 거리두기를 거부하고 예배 강행을 함으로써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것은 생명 살림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부름을 신앙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성숙한 태도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행위이다.

101. 또한 교회는 재난 상황에서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죽음 앞에서 무력했다. 재난이라는 종말적 상황에서 교회는 현실을 진단하고 종말 너머의 초월의 힘과 위로와 화해의 영성을 제안해야 했다. 하지만 교회는 자신의 생존과 유지에 집착하면서 출석 교인의 감소를 막고 교회 유지를 위한 헌금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세계를 와해시키는 것에 대해 신학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교회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타인의 생존과 안녕보다는 교회의 생존과 안녕을 우선시하면서 교회 내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디지털 환경에 낯선 이들을 챙기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작은 교회들과 연대하는 데는 소홀히 했다.

102.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보여준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모습은 교회가 더 이상 종교적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자적 기능을 상실하고 자본주의의 가치와 질서에 노예가 된 상황을 드러냈다. 교회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보편교회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린 채 성장 신화에 매몰된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위기에 대한 성찰

103.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마주하는 위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다.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된 것이 지금의 인간 삶의 조건에 내재한 탐욕과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것처럼, 코로나 이후 심화된 교회의 위기는 한국 교회에 내재된 “교회됨”과 “신자됨”의 잘못된 이해와 실천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의 신학적 과오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mammon의 지배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던 타락한 권위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다. 교회는 교회됨과 신자됨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좌초

되었고, 신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망각하면서 타락하게 된 것이다.

104. 그렇다면 교회됨과 신자됨은 어떻게 왜곡되었는가? 첫째는 교회가 목회자 중심의 권위 구조로 변모한 데 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체하고 신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교회의 역할과 신자들의 분별 기능을 마비시켰다. 교회의 의사결정이 목회자와 소수의 남성 권력자에 의해 이루어지면 신자들은 사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권위에 의존하는 신앙을 추구하게 되고,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관람객으로 전락했다. 목회자 중심주의는 교회의 관계 질서와 가치 질서가 곧 사회 질서라고 선포하면서, 교회가 가진 인적, 물적 자원을 건강하게 배분하고 활용하는 교회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렸다. 이로써 교회의 예배와 활동은 목회자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정당화되었다.

105. 둘째 교회는 성장신화를 추구하고 신앙을 사사화한 데 있다. 교회가 자본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내면화하고 맘몬(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면서 신자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신앙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교회는 축복의 표상인 건물중심의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해왔다. 교회의 목회적 성공은 교회 건축, 교인의 수, 교세 확장력으로 확인되었고, 더불어 개인의 신앙도 기복적이고 사사화 되어갔다. 신앙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신학은 세상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과 세상을 향한 공적 가치의 선포가 예배와 목회를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106. 셋째, 교회는 세상과 대화하고 관계맺는 법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배우기를 요청받는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교회 밖의 세계와 올바른 대화의 길을

잃어버린 채 사회적 연대와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나아가서 창조세계의 보다 매우 복잡하고 신비로운, 상호 의존적인 관계들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렸다. 신학과 신앙은 교회를 위한 봉사로 제한되었고, 사회적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상실하였다. 팬데믹으로 드러난 위기의 징후들은 오랜 시간 누적된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교회됨과 신자됨의 본질과 복음의 참 의미를 회복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희망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유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사회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107. 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한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현존과 그의 구원을 선포한다. 이 점에서 교회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선포, 즉 선교에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선교의 본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교세 확장과 교회 성장의 도구라는 차원으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활동에서 시작된 것으로 세상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현존, 그것이 선교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이와 같은 선교에 대한 포괄적 차원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됨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말할 수 있다. 또한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108.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상기한다면, 지금의 인간중심적 사고, 목회자중심적 구조, 건물 지향의 속성이 얼마나 선교에서 멀어졌으며, 어떻게 교회됨과 신자됨을 왜곡했는지 성찰하게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초한 선교지향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요 17:25-26), 이를 위해 교회는 세상에 자

신을 개방하고,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초대하신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n Dei)를 통해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회의 구조와 교리를 깨뜨리고 역동성과 변화 그리고 변혁의 도전들 앞에 서게 된다. 이러한 교회는 교세 확장과 같은 이기적 발로에서 행동하기를 그치고, 타인에게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기를 포기하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빌 2:5-8)을 통해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109.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억압과 고통, 소외와 차별, 가난과 주변부에 있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간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 생활 양식을 통하여, 인간을 억압하는 세력과 결연하게 맞서 싸우는 것을 통하여, 창조 세계의 생명 살림을 통하여 교회가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닫고 복음의 소명을 완수해야 한다. 복음은 개인의 탐욕과 기복 신앙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생명 구원과 정의를 위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자(딤후 2:5), 세상을 변혁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딤후 3:5-7)을 의미한다.

110.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에 따라 교회의 신앙을 보호하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변혁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목회자가 아니라 교인 중심의 교회 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목회자 중심의 위계적 권위 질서에서 벗어나 평등한 교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중심에서 주변으로', '사회 특권층에서 소외계층'으로 향하는 일방향의 교회와 선교 관점에서 벗어나, 주변화된 사람들이 선교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의 변혁과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고전 1:18-31)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셨다. 예수님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먼저 다가가 소외되고

힘든 자들과 한 식탁에 앉아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데 힘쓰셨다. 교회는 “주변을 향한 선교”에서 “주변으로부터의 선교”를 통해 수직적이고 경직된 교회 질서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유연한 교회 질서로 변혁하는 과정에서 교회됨과 신자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⁷⁾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긍정하는 친교 공동체

111. 목회자 중심의 교회 구조는 경직된 신앙과 목표지향적 선교를 주도해 왔다. 한국 사회와 경제 질서가 인간의 존엄이 아니라 성장과 풍요를 지고의 가치로 삼아왔듯이, 한국 교회도 성장과 번영을 구원의 증표로 삼고 신앙의 궁극적 목표로 지향해왔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친교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목회자나 구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권위 구조가 아니다. 그것은 신자 자신이며(고전 6:19-20), 신자들의 모임(행 19:32, 41)이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리(엡 1:23)이다. 교회의 삶의 토대는 친교이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친교는 교회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은사이자 상처입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생명의 선물인 것이다.

112. 친교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상대의 정체성과 차이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 활동을 통해 “거기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창 1:3) 모든 존재를 존재 자체로 긍정하셨다. 또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창 1:10) 다른 사람, 다른 문화, 다른 만

7)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 WCC 10차 총회 『자료모음』, 88쪽.

남 속에 자신을 열어 보이셨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긍정하고 모든 존재의 차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열어 보일 때 타인과의 진정한 친교가 가능하게 된다.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이신 것처럼, 친교 공동체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균형감과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고 공감하려는 태도, 그리고 세계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하려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대하는 태도이자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113. 교회는 상호 개방적이고 상호 친교적이어야 하기에 태생적으로 권위 구조에 따라 누군가를 배제하며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는 성장과 발전에 사활을 걸었던 교회와 신앙의 형태를 성찰하고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빛은 불의한 구조에 대한 회개를 요청한다. 친교는 사람이나 권력 혹은 건물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 구조를 해체하고 인종, 성별, 계급, 지역, 나이, 경제 수준 등의 서로 다른 정체성과 가치를 인정한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동종 문화가 되거나 특정한 집단이 위세를 갖지 않도록 늘 권면하고 경계하면서 도전 가운데 선다. 이러한 긴장은 교인들로 하여금 서로 자유롭고 수평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세계와의 관계에서 개방적이고 신뢰할만한 대화 파트너가 되게 한다. 따라서 친교를 나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분열된 세계를 회복하고 화평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서로 돌보고 서로 관계 맺는 섬김 공동체

114.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이며, 서로에게 얼마나

의존된 존재인지 보여주었다. 바이러스 확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각기 다른 종류의 죽음을 경험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황폐한 재난 상황은 지금 여기에서 교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진중한 성찰을 요청했다. 전시에 비견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연약한 자를 지키지 못하고 배제한 것은 비판적으로 얘기해야 했다. 예배의 신학적 의미를 신자들과 공유하고 공동체의 돌봄과 섬김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도 미흡했다. 그것은 일방향적인 교회의 소통 구조와 위계 질서가 갖는 고질적 행동 행동양식이었다.

115. 그리스도의 오심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데서 나타난다. 하나님 나라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상기한다면(막 10:45), 신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있는 존재로 타인의 필요와 유익을 살피고 서로 돌보는 삶을 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행 2:44-45).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삶이 하나님, 인간, 자연과 우주라는 생명의 관계망에서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생명의 관계망에서 한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부분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서로 돌봄과 서로 섬김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섬김과 돌봄은 힘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강한 자가 취약한 자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호혜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불의의 근원에 다가감으로써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116.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라면, 그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섬김과 돌봄을 포함한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나아가 지역 사회와 세계 문제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돌봄과 섬김의 가치 구조로 전

환하는 것이다. 그것은 불의한 구조에서 착취당하는 사람, 인종, 장애, 성별, 나이, 학력, 지역 등 서로 다른 조건이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람들, 병들고 약한 사람들, 전쟁으로 깨어진 사람들에게 조건없이 다가가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상황, 다른 문화, 다른 사람이 어우러져 서로를 보듬는 행위이자, 불의의 근원을 깨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는 행위이다(눅 14:15-24). 이 점에서 섬김과 돌봄은 성령이 갖는 변혁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다. 또한 세상에서 거룩하고 공변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향키가 된다. 진정한 섬김과 돌봄의 공동체는 맹목적 신앙에서 돌아서서 교회와 세상의 화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예배 공동체

117. 예배는 역동적이고 변혁적인 성령을 통한 하나님 현존의 경험이다. 신자들은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함으로써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공동체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힘과 연대의 가능성을 부여받는다. 다시 말해 예배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는 자리이자 세상을 향한 책임을 부여받는 자리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병폐인 목회자 중심과 건물 중심의 교회 이해는 예배의 참 본질을 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예배가 목회자를 비롯한 위계적 권위질서를 공고히 하고, 공동체의 배타적 폐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목회 철학의 부재, 판에 박힌 예배 형태는 예배의 본질과 그 변혁의 힘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 것이다.

118. 진정한 예배는 신자 개인과 공동체 나아가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이 되도록 이끈다. 예배가 전하는 통찰과 분별의 지혜는 지금의 기복적이고 사사화된 신앙에서 벗어나 불의와 부정을 직시하게 한다(암 5:24). 그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구조와 제도에 직면하여 그릇된 가치에 비판하고 도전하게 한다. 따라서 올바른 예배는 목회자와 건물을 중심으로 세워진 권위에 봉사하지 않는다. 팬데믹 상황에서 개교회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이기적 행태나 근본주의적인 신앙에 천착하여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신앙을 극복하는 힘이 예배를 통해 이뤄져야 했다. 예배는 결코 목회자 중심의 교회의 상징질서와 위계적 이데올로기를 지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다.

119.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생명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주어지듯이 모든 존재는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초대받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탐욕과 불의하고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저항으로 선포된 것처럼(엡 2:16), 예배를 통해 신자들은 한국 교회의 그릇된 권위 구조를 깨뜨리고 진정한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한다. 또한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릇된 권력 구조를 비판하고 권력을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요청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배는 항상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바른 성찰과 바른 지혜를 제공한다.

모두의 생명을 향한 살림 공동체

120.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은 한국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였는가를 되돌아보게 한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개인 영성에 국한된 영

혼 구원과 번영 담론을 우선 가치로 삼아온 측면이 다분하다. 진정 교회가 개인 영성을 넘어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살피고 인간 존엄을 위해 봉사하며, 나아가서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동식물이 멸절되고 생태계가 파괴 되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관심하고 노력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는 인간만이 아니라 숨 쉬고 성장하는 모든 생물이 존재 자체로 제 역할을 하며 보다 넓은 생명의 관계망에서 이 세계가 유지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렘 10:12). 우리가 보살피고 연대해야 할 이웃은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고 우리를 살게 하는 지구 자연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21. 교회가 “공동체로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생명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육이 되신 하나님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고백(고전 12:27)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책무를 가진 공동체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이들의 죄를 지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요 1:29), 교회도 세상에서 고통받고 희생당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피조 세계를 외면한 인간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의 탐욕으로 착취당하고 파괴된 생태계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의 대상이다.

122. 교회가 하나님의 현존이자 궁극적으로 타자를 위한 공동체라고 할 때, 우리에게 타자는 누구인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타자는 나 이외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선다. 인간을 넘어 비인간 존재들,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태 환경을 아우르는 것으로, 타자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생명 가운데 깃들여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발 딛고 있던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다. 교회가 타자를 위한 공동체라는 인식은 타자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과 자연을 경계짓고 타자화 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과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야만성과 폭력성을 이야기해야 한다.

123.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교회는 세계 곳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인종, 성별, 계급 등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난개발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피조 세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생명을 살리는 데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은 교회에게 타자의 의미와 타자 경험이 무엇인가 되문게 함으로써 생명 살림에 대한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보편적 교회와 신자의 사도성

124.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의 고통에 무감각한 교회, 성 비위와 재정 비리, 교회 세습과 교세의 급격한 축소, 건강하지 못한 교회 생태계 등 지금의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신자들의 사유하는 힘과 소통하는 방식을 억압하는 데 있다. 가부장적이고 위계적 권력 구조로 인한 경직되고 일방향적인 교회 문화는 교회의 본질과 가치를 발견하고, 주요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공적 장을 허락하지 못한다. 다른 생각과 의견을 차단하고 대화의 과정을 거부한다. 그러나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요 3:8), 창조의 생명과 변혁의 힘은 자유롭게

고 역동적이며 인간의 이성과 기대를 넘어 활동한다. 신앙의 힘은 해방에 있고, 진리의 힘은 자유에 있으며, 신자의 힘은 세상을 끌어안고 사유하고 대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신자됨은 교회의 명령을 따르는 데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해 묻고 세상의 문제를 씨름하는 데서 나온다(히 12:1-3). 진리를 강요하고 사유화하는 것은 복음을 훼손하고 생명 활동을 가로막는 것이다.

125. 그리스도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에 반응하고 이 세계에 질문을 던짐으로써 진리의 참 빛을 드러내셨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예민한 감수성과 비판적 성찰을 수반하는 것으로 진리가 보편의 힘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과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 진리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실천하는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고전 12:26-17). 생명은 나와 너의 경계를 깨뜨리고 다른 존재와 다른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풍성해진다. 교회가 진리의 유일한 계승자가 되어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다. 교회는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 모든 생명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의지가 무엇인가를 식별해야 한다. 그것은 세상과 교회, 목회자와 신자, 직분, 성별, 장애, 인종, 계급 등 수많은 경계를 넘어 세상과 더불어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공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됨이자 신자됨이다.

126. 오늘날 신자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이다. 이것은 성령을 통한 식별의 은혜로서 신자들이 인종, 지식, 계급, 문화적 자산이라는 세상의 경계를 넘어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교회를 민주적이고 친교적이며 연대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분별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다른 교회와 연대하고 세계

와 연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요청받는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모든 억압에서 인간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이셨다. 이와 같은 공감과 공존 그리고 세상을 향한 투신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동참하고 다른 이들과 연대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변혁의 토대가 될 것이다(갈 2:20).

127. 교회는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 소리 낼 수 없는 자, 비통에 빠진 자,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그들과 연대함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 비로소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재난 상황과 무한 경쟁과 각자도생으로 피폐한 사회에서 교회는 조건없이 사람과 교회 그리고 절멸하는 피조 세계를 끌어안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은 생명있는 존재를 타자화하고 착취해왔던 자본주의 질서, 인간중심적 사고, 이분법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잘못된 질서와 구조에 저항함으로써 세계와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대안적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딤후 2:4). 이것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됨과 사도의 책무를 다하는 신자됨의 모습이다.

VI. 신학적 도전들

도전과 그 의미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롬 12:2)

128. 팬데믹 하에서, 한국사회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생각할 때,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든 조건과 이 팬데믹이 교회와 사회에 선행이 없는 재난이 될 수 있게 한 원인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면, 그리고 이 팬데믹의 재난이 가리키는 미래를 향하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각오가 없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학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전망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129. 교회와 신학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사회적 위기와 재난 앞에서 교회와 신학의 역할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위기와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재난과 위기를 불러오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재난을 극복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도 교회와 신학의 역할은 이중적일 수 있다. 근본적인 회심과 변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불러오는 촉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매우 부정적으로는 그와 같은 미래를 향한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30.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재난은 단순히 바이러스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고, 의학적 사건으로 축소될 수도 없다. 오히려 재난의 근본원인은 바이러스의 존재가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지구적 조건을 제공한 우리 삶의 방식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측면에서 인간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와 신학도 예외가 아니다. 교회의 신앙적·신학적 실천은 바이러스가 팬데믹의 재난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일조해 왔다. 따라서 교회가 자신의 현재와 과거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무엇

보다 시급한 과제다.

131. 수백만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재난의 상황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위기의 실상을 가리는 각종 음모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빙자하여 팬데믹의 재난이 분명히 드러내 보여 주는 생태적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교회와 신학이 재난의 실상을 가리는 역기능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신학의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많은 생태비평가와 신학자들이 고백해 왔듯이 신학은 지금의 재난을 불러온 더 오래되고 근본적인 이유를 제공해 왔다.

132. 이번의 팬데믹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다가오는 생태적 위기의 원인을 신학적 인간 이해나 세계이해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것을 단순히 종교와 신학을 폄훼하려는 세속주의의 공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신학을 향한 비판과 도전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학의 책임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학을 향한 간절한 요청을 담고 있는 도전이다. 팬데믹의 재난은 교회와 신학을 향한 교회 안팎의 비판과 도전에 정말로 진지하게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교회는 우리 시대 지구생태계의 위기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느끼며 새로운 실천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새로운 신앙과 신학의 길을 찾아야 한다.

133. 이는 결코 신앙과 신학의 놀라운 힘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그리고 이미 저질러 놓은 과오를 없애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돌이키기 힘들 정도의 가장 비판적인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과오나 그 과오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사실들의 포로가 되어 절망에 갇혀 있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가장

늦은 마지막 순간에도 되돌아서서 새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이다. 신앙은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과 희망을 향한 길을 여는 힘이다.

134. 지금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어두운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이 어둠을 피해서 다시 과거의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길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둠의 포로가 되어 그 어둠에 굴복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암시하고 있듯이,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들을 버리고 신앙적·신학적 사유와 실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 또한 그 뜻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과제 앞에서 있다.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135. 팬데믹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의 복잡성과 다중성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팬데믹은 인간 공동체 안에서 국경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혹은 인종적, 성적,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또 경제적, 계급적 차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의 아픔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의 고통이 불가분리의 연관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가 무시하고 외면해온 약자들의 삶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팬데믹으로 증폭하는 현상을 보았고, 그들이 팬데믹에 의해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도 알았고, 또한 그들이 무책임하고 잔인한 낙인찍기와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분명히 보았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눈감아버린 누군가의 아픔이 우

리에게는 팬데믹의 위협으로 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136. 하지만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가 인간사회의 한계를 넘어 전체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거시적으로는 전체 지구 행성의 건강함이 인간의 건강한 삶과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무생물적인 물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피조물의 건강함이 인간 삶의 건강함과 매우 긴밀하고도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137. 팬데믹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계성, 혹은 상호의존성에 대한 사유와 상상의 폭을 거의 팬데믹적으로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명과 비생명의 구분이 모호한 회색지대를 사는 바이러스가 생명계의 일부로서 활력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또한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구별을 무력화하고 있다. 생명 있는 것, 유기물, 생명 없는 것, 화학물질, 지질학적 현상 등등이 불가분리하게 서로 긴밀하고도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38. 이처럼 팬데믹이 보여주는 모든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확장된 시각은, 인간중심의 관계성 이해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생명계 전체의 관계성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람 아닌 모든 생명과 생명 없는 것들의 복잡한 관계와 함께 작동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람이 아닌 거대하거나 미세한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함께 얽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39. 성서 전통은 이미 피조물들 사이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탈인간

중심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성서는 가난한 자들의 애통함과 피조물들의 탄식에 함께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성서는 가난한 자들의 울음 속에서 땅의 울부짖음을, 땅의 울부짖음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신음을 함께 듣는다(사 24, 33:9, 렘 12:4-6). 이와 같은 성서적 전통을 이어받은 에큐메니칼 선교 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게 부분적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복음은 창조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삶 과 사회의 모든 측면에 좋은 소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선교를 우주적 차원으로 깨닫는 것과 온 생명,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지구의 미래가 명백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것과 그 위협은 무슨 관련이 있는가?”⁸⁾

탈인간중심주의적 창조와 구원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탈인간중심적 입장에서 교회의 선교적 존재 이유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이러한 신학적 요구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140. 교회의 선교적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신학을 위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발견들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는 신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은 물론이요, 다른 종교나 토착문화의 전통 안에서 탈인간중심주의적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해 왔던 유산들을 다시 발굴하고

8)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 WCC 10차 총회 『자료모음』, 79 쪽, 4번.

재검토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신앙과 실천이 보지 못했던 영역들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도 희생적인 자세가 꼭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신앙과 신학이 침묵해왔던 영역들, 식민주의적으로 폄하하고 배타적으로 배제해왔던 문화적 종교적 통찰들과 유산들 속에 깊이 담겨 있는 생태적 통찰을 읽어내려는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착취와 차별의 식민적 질서를 넘어서

141. 팬데믹의 상황에서, 더 가혹한 억압과 차별을 겪으면서, 인간중심주의와 인종주의와 식민주의가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아메리카 흑인들의 탄식과 탄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을 차별하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차별하는 사고방식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물로도 진정으로 한 인간으로도 취급받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인종적 타자들에게 길고 오랜 고통의 역사를 강요하였다.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차별적 사고방식은 사람 아닌 것들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행성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식민화하고 착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왔다.

142.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을 구별하여 차별하는 논리는 지구적 생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피조물 사이의 관계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구별할 권력을 가진 특정 인종, 특정 문화에 대해서 생태적 책임성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적이고 정복적인 특권을 허락해 주는 식민주의적 억압과 착취의 논리다. 지금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예외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팬데믹이 보여주는 생태적 위기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태적 위기에 대한 부인의 근거를 신학을 통해서 찾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예외성을 말하고 동시에 위기의 실재를 부인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의 주장 속에서, 식민주의적 선교신학의 논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본다.

143.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생명과 비생명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사고방식은 상업주의적 시장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사람들과 수많은 무생물을 사람들의 욕망을 위해서 언제든지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소비재로 취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며, 모든 것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고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보겠다는 태도다.

144.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차별하고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을 차별하는 태도는 냉전적 혐오와 배제와 대결의 문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문화적 소수자와 인종적 소수자 그리고 경제적 약자들을 차별하는 태도로 지속되고 있다. 이미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가치와 경쟁가치를 상실한 요양병원의 환자들, 노인들 그리고 취약한 빈곤 계층들이 있었고, 우리가 정한 법질서 안에서 권리주장조차 할 수 없이 사회적 법적으로 소외와 억압을 견뎌온 노숙인, 이주민, 성소수자, 유색인종, 여성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외면해왔다. 우리는 그들이 죽어갈 때마다 명복은 빌어도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온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모든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떠넘기는 데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그들이 바로 감염의 경로가 되고,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 되어 전체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을 구별하여 이용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인간중심주의적 발상은, 식민주의와 분단의 역사를 만들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이러스가 팬데믹이 될 수 있게 하는 삶의 조건, 곧 억압과 차별과 경계 짓기를 통해 타인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일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145.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차별과 경계 짓기의 태도를 유지하는데 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들을 교회와 신학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로 여긴다든가 아니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속되고 있는 사회 갈등의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의 재난 앞에서 한국교회와 신학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반성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교회와 신학으로 하여금, 냉전적 분단 질서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별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생태적 관계 질서를 향해서 닫힌 문을 열라는 요청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요청은 첫째로 탈분단적 탈냉전적 신학적 상상력을 회복하라는 요구이며, 둘째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변화시켜 낼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만들어 내라는 요구이며, 셋째로 보다 깊고 넓게 모든 피조물들과의 상호의존의 관계를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생태적 상상력, 곧 생태적 인간 이해와 공동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사유와 실천에 대한 요청이다.

146.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간중심주의의 틀은 두텁게 우리 사유와 실천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드러내 보여주는 살아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든 피조물과 얽히는 관계성의 성격은 아직

도 그 깊이와 폭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심연이다. 때문에, 토대가 흔들리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 온 신학적 인간 이해를 그 근본에서부터 물음에 부치는 보다 급진적인 신학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147. 교회의 탄생에는 일차적으로 예루살렘 사도들이 지키고 있던 정통적인 질서에 도전하여 선교와 사역의 폭을 과감히 확장했던 일곱 집사들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집사들의 도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회심하게 되었고, 이 회심이 교회 탄생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음을 사도행전은 보고한다. 베드로의 회심 사건은 복음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급진적으로 전파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지금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교회와 신학의 회심 사건이 다시 필요한 때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얽힌 생명의 그물망 안에서 복음이 맺는 관계들의 깊이와 넓이를 새롭게 발견해야 하는 때다.

신학적 인간 이해의 새 길을 찾아서: 온생명과 희생

148. 인간은 인간 아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신학적 인간 이해를 오늘의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신학적 노력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신학적 인간 이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인간 ‘생명’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생명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신학적 의미를 밝혀야 한다.

149. 한국의 물리학자이자 과학철학자인 장회익은 ‘온생명’(Onn-life) 사상을 통해 인간 생명과 지구생태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제안한다. 그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통찰한다.

생명이란 스스로를 유지하며 성장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전한 생명의 최소 단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개체 생명이 아니다. 개체 생명은 다른 존재 없이 스스로를 유지하며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생명은 태양-지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그 안에 복잡한 관계망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장회익은 태양-지구 시스템이야말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 생명(낱생명, Nat-life)의 가장 바탕이 되는 생명이자 진정한 생명의 최소 단위라고 말하면서, 이 생명의 최소 단위를 ‘온생명’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인간은 생명을 개체 중심의 낱생명으로만 이해하고 낱생명 사이의 관계만을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장회익에 의하면, 낱생명이 들어앉아서 영향을 주고받는 보다 근원적인 관계망 자체가 진정한 생명으로서 온생명이다. 낱생명의 구체적인 양상은 지구와 태양이 함께 관여하는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전개된다. 예수는 포도나무며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라는 요한복음의 비유(요 15:5)는 온생명을 기반으로 인간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성서적 토대를 마련해준다.

150. 한편, 관계망 자체로서의 생명, 곧 온생명 속에서 낱생명은 생과 멸을 거듭한다. 따라서 온생명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서사는 낱생명들의 솔한 죽음에 관한 성찰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모든 개체 생명은 죽음이 있기에 비로소 생명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온생명 사상은 생명이 성장 유지되는 과정에서 낱생명 차원의 생성과 소멸이 필연적으로 요청됨을 겸허하게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낱생명의 생성소멸은 다른 낱생명의 생성소멸과 연결된다. 여기에는 인간 생명도 예외가 없다. 인간도 낱생명으로서 온생명 내의 관계망 속에서 삶과 죽음을 경험한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생명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죽음을 기독교 신학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다시 말해, 다른 존재의 생명을 위해 죽어가는 존재가 낱생명이 경험하는 생명의

과정에서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신학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

151. 여기서 기독교 신학이 집중해야 할 사실은 ‘희생당하는 존재의 잠재성’이다. 이 사실은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음미하게 한다. 사실, 만물의 상호연결성, 상호의존성은 다양한 세계관들 뿐만 아니라 기술과학과 결합하며 발전하고 있는 성장주의 경제 체제도 화두로 삼고 있지 않은가? 이를테면,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념인 ‘초연결’과 맥을 같이 한다. 여기저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등장하는 연결과 상호의존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다음을 물어야 한다. 상호의존과 연결이라는 말로써 기독교 신학이 강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152.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생명이 유지되는 방식을 검토해 보자. 생명이 유지되는 과정은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연결과 상호작용에는 상호성이 아니라 모종의 일방향성이 작동한다. 예컨대,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먹는다.’ 먹는 행위는 먹는 주체를 중심으로 에너지와 물질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지만, 이 상호작용이 추구하는 목표는 상호적이지 않다. 일방적이다. 먹고 먹히는 과정이 어떻게 상호적일 수 있겠는가? 먹는 존재는 자신을 ‘새롭게’ 유지하지만, 먹히는 존재는 단지 회복 불가능하게 소멸할 뿐이다. 이것을 상호의존이라고, 상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명의 계기는 연결과 관계를 매개로 하지만, 평등한 상호성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생명의 살림-살이 과정은 상생이 아닌 희생이 더 어울리는 말이다.

153. 따라서, 기독교 신학이 상호의존과 연결이라는 말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희생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정신에 있어서 희생은 이미 오래전

부터 기독교 신학의 고갱이다. 희생은 예수가 이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화두로 던지는 방식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의 자발적 희생은 억압과 착취의 세상 속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민중의 눈물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예수의 희생은 민중의 희생 속에서 생명을 주는 희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서는 광야에 나온 민중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 5:14)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마 5:13)라고 분명하게 알려준다. 희생당하는 존재야말로 세상에게 생명을 가져올 잠재적인 힘이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기독교 신학은 희생으로 지탱되는 온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Ⅶ. 다시 희망을

154. 진정한 목시록은, 끝과 허무와 절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 가려지고 갇히고 막혔던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가능성을 드러내는 일이 진정한 목시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말과 끝에 관한 목시록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쉽다. 그리고 그 수동성은 기존의 살아온 질서와 특권을 방어하려는 방어적 저항과 공모한다. 한국교회를 과잉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근본주의, 문자주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펜데믹과 재난에 대한 신학적해석과 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목시가 가진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신앙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불신앙의 태도다.

155. 희망을 드러내는 목시록을 위해서, 불가능한 희망이나 거짓된 희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도덕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의 희망이 정말로 필요한 때이다. 신앙을 자극하여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힘을 갖게 할 수 없는 신학은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신학이 될 수 있다.

156.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깊고도 근본적인 용서와 화해를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에 게서, 이 재난을 불러온 과거의 불의와 폭력과 억압과 착취의 역사에 포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참담한 재난 속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발견한다.

157.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과거의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이 위기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힘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상처를 안고 희망을 품는 것이다. 상처를 야기한 원인들이 오히려 희망의 가능성이 되도록 변혁하는 힘이다. 식민주의와 전쟁과 분단이라는 절망의 어둠 가운데서 변혁의 희망을 발견해 온 것이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었다. 두려움과 공포의 실재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려내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

158.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변화를 향한 우리의 희망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후 12:9-10)